



<노동시장개혁 이슈 리포트 ⑨>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어느 정도인가?

- 생산성이란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자본, 노동 등 요소투입(Input)과 산출물(Output)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투입요소 한 단위가 산출한 생산량(또는 부가가치)을 의미함. 노동생산성은 노동투입량에 대한 산출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물적 노동생산성과 노동투입량에 대한 부가가치의 비율을 나타내는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으로 대별할 수 있음.
- 노동생산성 지수가 높아졌다는 것은 근로자 1인당 산출량이 증가하였다는 의미임. 물적 노동생산성지수는 조업도, 생산기술 및 설비의 수준이나 변화를 파악하는 데 많이 쓰이고,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는 임금을 결정할 때나 노동생산성의 국제경쟁력 비교에 유용한 지표로 활용됨.

【OECD통계에 따른 노동생산성 비교】

- 노동생산성의 국제비교를 위해서 OECD에서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총 노동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다시 말해 노동자들이 단위노동시간 동안 산출하는 생산량의 평균 시장가치를 비교하는 것임.
- 2014년 기준으로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1.9 US달러(이하 단위 생략)로 미국(67.4), 독일(63.5), 프랑스(64.0)의 절반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영국(49.2), 캐나다(50.6), 이탈리아(50.5), 일본(41.2) 등 나머지 G7국가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OECD 회원국 전체의 노동생산성은 49.0 US달러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로는 터키(30.8), 헝가리(31.1), 폴란드(29.5) 등이 있으며 최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35.9), 포르투갈(35.1), 스페인(51.0) 등의 국가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OECD 회원국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주된 이유로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은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임.
- 한국생산성본부가 OECD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8.7 USD로 네덜란드(64.1), 스웨덴(58.1), 독일(57.5), 프랑스(56.4) 등 보다는 낮았으나 영국(44.3), 이탈리아(34.6) 등 보다는 높았음.
- 반면 서비스업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2.5 USD로 프랑스(47.3), 네덜란드(45.7), 독일(45.0), 영국(40.1), 스웨덴(39.3)은 물론 그리스(28.4), 포르투갈(26.4) 보다는 낮았음.
-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3년의 경우 제조업의 46.1% 수준으로 이는 비교 가능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임. 서비스업 가운데서도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유통·운수·음식·숙박업과 기타 서비스업이 특히 낮았음.
-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이처럼 낮은 것은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서비스업으로 노동력이 과도하게 유입된 영향이 큼. 즉 제조업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고용창출능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로 인해 노동력이 서비스업으로 집중되어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초과하게 됨으로서 결과적으로 노동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임.

【APO통계에 따른 노동생산성 비교】

- 한편 아시아생산성기구(APO)에서 발표한 아시아 주요국의 2013년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을 보면, 싱가포르가 121.9 USD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홍콩 99.8 USD, 대만 90.6 USD, 일본 71.4 USD의 순이었음. 우리나라는 61.5 USD로 5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싱가포르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홍콩, 대만에 비해서도 훨씬 떨어지는 수치임.

-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보더라도 싱가포르가 52.7 USD, 홍콩 45.7 USD, 대만 43.0 USD, 일본 41.1 USD, 한국 27.9 USD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아시아 경쟁국들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OECD, OECD Stat(<http://stats.oecd.org/>)

APO, APO Productivity Databook 2015

한국생산성본부, 2013년 노동생산성 국제비교